

삶과 죽음.

삶은 오늘날 죽음의 序曲을 노래하였다.

이노래가 언제나 끝나랴.

×

세상사람은——

뼈를 녹여내는 듯한 삶이노래에.

춤을 추는다.

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前,

이노래 끝의 恐怖를

생각할 사이가 없었다.

(나는이것만은알었다.

이노래의 끝을 맛본 이들은.

自己만알고.

다음노래의 맛을아르켜주지아니 하였다)

×

하늘 복판에 알색이드시.

이노래를 불은者가 누구뇨

그리고 소낙비 끝인뒤같이도.

이노래를 끝인者가 누구뇨.

×

죽고 뼈만남은.

죽음의 勝利者 偉人들!

昭和九、十二、二四、

삶과 죽음

삶은 오늘날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.

이 노래가 언제나 끝나랴.

×

세상 사람은——

뼈를 녹여내는 듯한 삶의 노래에

춤을 춘다.

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

이 노래 끝의 공포를

생각할 사이가 없었다.

×

(나는 이것만은 알았다.

이 노래의 끝을 맛본 이들은

자기만 알고

다음 노래의 맛을 알으켜 주지 아니 하였다.)

×

하늘 복판에 아로새기듯이

이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뇨.

그리고 소낙비 그친 뒤같이도

이 노래를 그친 자가 누구뇨.

×

죽고 뼈만 남은

죽음의 승리자 위인들!

1934. 12. 24.